

플랜트 전문인력 온라인 수급시스템 구축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산업의 인력수급을 관리할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5월20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8년 플랜트 전문인력마트에서 플랜트산업협회는 전문인력 수요기업과 구직자를 상시 연결하는 온라인 인력수급 시스템을 5월 말까지 구축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오일머니가 풍부해진 산유국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국내기업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4월까지 1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8% 늘어나는 등 5년간 연평균 66% 고속으로 성장해왔다.

행사에도 대림산업을 비롯해 202개 대·중소기업 플랜트기업이 참가해 모두 1800여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플랜트 업계는 곧 구축될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도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말까지 중장기 플랜트 전문인력 확충방안 로드맵을 만들어 인력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태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는 플랜트산업이 2012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원천기술 개발 등 인프라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5/20>